

공공사업자신약개발사업단 (120-020)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1-1 KT&G 서대문타워 14층
 Tel: 02-361-3620 Cell: 010-8516-0357 E-mail: ychong@kddf.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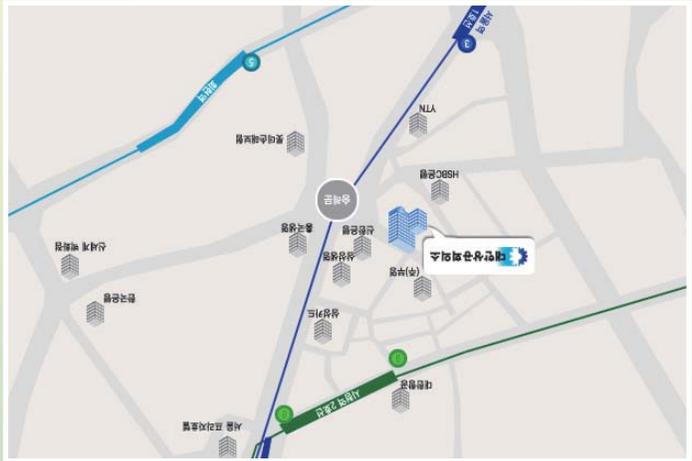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간호회 과장 서용 특례사업 중구 중로 27가 50-6 라이온스 빌딩 타호비지니스센터 3층
 Tel: 02-2616-0927 Cell: 010-2729-6240 Fax: 02-704-0928 E-mail: ndsymposium@naver.com

신약재창출심포지엄 II 행사 사무국

-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출구
 유선공원역하 5분거리
- 지하철 3호선 서울역 3번출구
 라 TN 빌딩가리

- ◆ 대한상공회의소
-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7가
 45번지 상공회의소회관
- 02-6050-3114



신약 재창출 심포지엄 II

Drug Repositioning Symposium II

일시 : 2013년 4월 9일(화), 13:30~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0100110100101101001010011010010110100101001101001
 재단법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Korea Drug Development Fund
 0100110100101101001010011010010110100101001101001
 0100110100101101001010011010010110100101001101001

초청의 글

안녕하십니까?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 이동호입니다.

정부 부처간 R&D 경계를 초월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2011년 9월에 출범한 이래,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다양한 질환분야에 걸쳐 29개의 과제가 선정되고 이 중 2개 과제가 라이선싱 아웃(licensing-out) 되었으며, 또한 국내외 많은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등의 뜻 깊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신약개발 연구진의 우수한 역량에 비해 실질적으로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물질의 수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며, 선진국에서조차 신약개발 R&D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단시간에 파이프라인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 중단된 약물을 갖고 새로운 적응증을 모색하여 다시 개발해내는 신약재창출사업 (Drug Reposition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단은 지난 해 11월,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신약재창출사업 (Drug Repositionin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약재창출사업에 관한 국내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실제 이러한 신약재창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의 MRC 와 미국 NIH-NCATS의 프로그램 책임자를 통해 선진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의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패널토의를 실시하여 한국형 신약재창출사업의 성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본 심포지엄에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3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단장 이 동 호

AGENDA

13:30-14:00

Registration

14:00 - 14:10 (10')

Opening

이동호 단장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14:10 - 15:00 (50')

Experience from NIH/NCATS

Christine Colvis, Ph.D. (NIH/NCATS)

15:00 - 15:50 (50')

Experience from MRC

Christopher Watkins, Ph.D. (MRC)

15:50 - 16:20 (30')

Networking Break

16:20 - 18:00 (100')

Panel Discussion

Role of Medical Society in Korea for Successful Drug Repositioning initiative

고재욱 교수 (삼성서울병원)

신재국 교수 (인제대 부산백병원)

김태원 교수 (서울아산병원)

김성수 책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최현아 메디칼디렉터 (한국릴리)

김재은 박사 (녹십자)